

국어 사물 개념의 은유적 확장 연구*

- 대화 말뭉치를 바탕으로 -

임혜원
(상명대학교)

<Abstract>

Lim Hyewon. 2006. Metaphorical Extensions of Thing Concepts in Korean: A Corpus-based Study. *Korean Semantics, 19*. In a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 metaphor is to understand one thing in terms of another. For example, we metaphorically understand some abstract concepts as some objects existing in physical world. Such metaphorical understanding is reflected in language. This paper explores metaphorical extensions of THING concepts in Korean using corpus data to reveal how Korean language users understand and use the concepts of THING. More specifically, we examine how abstract concepts are metaphorically understood in terms of THING concepts. Since things are essential in our daily life, various thing concepts constitute source domain concepts for a large number of abstract target domain concepts. THING concepts are built upon our physical experiences and the knowledge about the things enables us to understand other abstract concepts metaphorically. In order to find metaphors that are based on THING concepts and that are frequently used, we examined relevant metaphorical expressions attested in spoken Korean corpus. We can find the metaphorical conceptualization of THING in terms of QUANTITY, WEIGHT, TEMPERATURE, BRIGHTNESS, DENSITY OF THE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KRF-2004-037-A00105). 또한 이 논문은 2006년 2월 24일 서울여대에서 열린 한국어의미학회 18차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발표장에서 좋은 말씀 주신 임지룡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THING based on the attributes of THING such as touching and handling the objects. Also we can find the metaphorical extension of SOLID, a state of things, in terms of SIZE, SHAPE, FEELS OF THE THING based on the attributes of THING such as grasping and manipulating the objects. Finally we can find the metaphorical extension of LIQUID,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liquid such as fluidity. This research validates cognitive processes by which language users understand abstract concepts in terms of concrete concepts. Also, those thing metaphors are of experiential basis, for they are motivated by physical experiences of Korean language users.

핵심어: 은유(metaphor), 은유적 확장(metaphorical extension), 의미확장(semantic extension), 개념화(conceptualization),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 그릇 은유(container metaphor), 근원영역(source domain), 목표영역(target domain), 경험적 근거(experiential basis), 신체화(embodiment), 체험주의(experientialism)

1. 연구 개요

인지언어학에서는 은유에 대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더 구체적인 개념 관점에서 이해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건, 행위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경계와 형태가 있고 구획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만지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사물로 인지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이면서 기초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인 사물 개념을 근원영역으로 하는 은유적 개념화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¹⁾

이 연구에서는 실제 대화에 나타나는 은유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화 말뭉치에서 뽑은 은유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1) Kövecses(2002, 이정화 외 옮김, 2003: 187)에서는 이와 같은 논제를 은유의 범위(scope of metaphor)라고 하였는데, 은유의 범위란 주어진 근원영역이 적용되는 목표영역의 범위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근원영역인 사물 개념이 적용되는 목표영역의 범위를 살핀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특정 근원이 어떤 목표영역에 적용되는가를 살피면 우리의 개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1) ㄱ. 연세대학교 구어전사 말뭉치 자료(2001)
- ① 20, 30대 남녀의 일상대화 31,073어절
 - ②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 ‘100분토론’ 11,660어절
 - ③ 대학 강의 4,745어절
 - ④ 워크숍 3,434어절
- ㄴ. 양영하(1997)의 라디오방송 담화 15,680어절
- ㄷ. 전영옥(1999)의 대학(원)생 발표·토론 담화 23,928어절²⁾

(1)의 담화의 내용은 일상 대화, 발표, 토론, 강의, 워크숍 등으로, 특정한 담화 상황에 국한되거나 인위적인 상황이 아닌, 가능한 한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의 대화 자료에 사용된 은유를 분석함으로써 은유의 일상적인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국어 사용자의 사물 은유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 국어 사용자에 의해 발화된 (1)의 구어 말뭉치 전체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사물 개념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은유 자료를 추출한다. 이 은유 자료들을 통해 두드러지는 현상을 바탕으로 국어 사물 은유를 유형화하고, 은유적 개념화 현상에 대해 기술하며, 어떠한 종류의 추상적 개념을 사물의 어떠한 특성이나 속성으로 인지하는지를 살피고, 그와 같은 은유적 개념화의 동기가 되는 체험적 근거를 찾아 설명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물이라는 개념에 근거한 은유적 확장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일상적인 현상으로서의 은유적 개념화 과정을 관찰하고, 국어 사용자의 사물 개념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와 같은 개념화의 근거는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2) 연세대학교 구어전사 말뭉치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1998년부터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말뭉치의 일부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자료는 2001년에 구축한 전사 자료이다. 양영하(1997)의 말뭉치는 방송 상담 대화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이며, 전영옥(1999)의 말뭉치는 국어 담화에서의 반복표현을 연구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다.

2. 앞선 연구

인지언어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은유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Lakoff와 Johnson(1980)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비롯한 일련의 인지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은유 이론에 반기를 들면서, 은유는 개념적인 것이며, 사고와 추론에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은유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과 행위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본질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은유가, 문학이나 수사학 분야에서 다루어왔던 은유는 물론 이 분야에서 은유라고 보지 않았던 일상 언어의 현상들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으며, 비언어적인 현상들도 은유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³⁾

또한 Lakoff와 Johnson(1980, 1999), Johnson(1987), Sweetser(1990), Gibbs(1994), 나익주(1995), Kövecses(2002), 노양진(2003), 김종도(2004) 등의 많은 인지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은유적 의미로서의 쓰임이 비은유적인 일상의 신체적·지각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체험주의(experientialism)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신체화된 경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⁴⁾ Kövecses(2002, 이정화 외 옮김, 2003: 123)에서는 개념적 은유가 체험적 상관성, 비객관적인 유사성, 두 개념 공통의 생물학적·문화적 뿌리 등을 비롯한 인간의 다양한 경험에 근거한다고 하면서, 개념적 은유가 이러한 토대를 지니는 것을 은유의 체험적 기반 또는 동기 부여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른바 사물 은유는 바로 이러한 신체화(embodiment) 과정에서 나타난 은유이며, 사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추상적 경

3) 이와 같이 인지언어학적 입장의 많은 연구들은 은유가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분야에서의 은유적 개념화 방식을 예로 들면서 주장하고 있다. 문학적 은유가 일상언어에서의 은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Lakoff와 Turner(1989)를 비롯하여, Gibbs(1994: 120-127), Kövecses(2002, 이정화 외 옮김, 2003: 101-116)에서는 사고, 과학, 법, 정치, 신화, 문화, 영화, 만화, 그림, 조각, 건축, 광고 등과 같이 비언어적으로 실현되는 예를 보이면서 은유가 개념적인 문제라고 하였다.

4) 신체의 경험이 개념 형성이 바탕이 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임지룡(2005)에서는 감정 표현에 대해 살폈는데, 추상적인 감정이 신체 생리적 반응을 통해 개념화되며, 이를 감정의 생리적 환유(physiological metonymy)라고 한다고 하였다.

협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⁵⁾

Lakoff와 Johnson(1980: 25-29)에서는 우리 경험의 부분을 개체와 물질로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개체와 물질 은유(Entity and Substance Metaphors)라 하고 이를 은유적 개념화 방식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s)로 보았다.⁶⁾ 이와 관련하여 나익주(1995: 207-208)에서는 존재론적 은유가 추상적인 사건, 활동, 생각 등을 구체적인 물건이나 물질로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으로 은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⁷⁾ 또한 존재론적 은유의 근거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시, 양화, 양상 식별, 원인 식별, 목표 설정 등의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존재론적 은유는 그러한 목적을 충족시킨다고 하였다. Kövecses(2002, 이정화 외 옮김, 2003: 54-56)에 의하면, 존재론적 은유는 구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때 우리가 더 명확하게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므로써 체험의 측면들을 지시하고, 양을 정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개념화된 체험은 구조적 은유에 의해 더 자세히 구조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인지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유 관련 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은유 분석, 한 언어형식의 은유적 의미확장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많은 연구에서 은유를 다의어 구조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의미확장이나 문법화 기제로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은유 연구의 이론적 바탕은 주로 앞서 제시한

5) 김종도(2004: 252)에서는, 일찍이 Leech(1969: 158)에서도 'the pain of seperation, the light of learning'과 같은 'of'가 이용되는 은유를 구체화 은유(concretive metaphor)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이별, 학문 같은 추상적 개념을 우리가 신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고통, 빛'으로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6) 이 글에서 사용하는 번역용어는 Lakoff와 Johnson(1980)을 번역한 노양진·나익주 옮김(1995)에 따른 것이다.

7) 김명미(2002)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Lakoff와 Johnson(1980)의 구조적 은유, 방향적 은유, 존재적 은유의 이해 정도를 조사한 연구인데, 이 연구의 결과, 이해 정도가 존재론적 은유 > 지향적 은유 > 구조적 은유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존재론적 은유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은유이며, 따라서 가장 이른 시기에 습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존재론적 은유가 가장 기본적인 은유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akoff와 Johnson(1980)으로 대표되는 인지언어학적 개념적 은유 이론에 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언어학자들은 국어 사용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실현되는 은유적 개념화 방식과 언어형식의 의미확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은유가 의미확장의 기반이 되며,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국어 은유 연구가 국부적인 현상의 기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국어 사용자의 기본 개념 체계를 논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은유적 개념화를 일으키는 체험적 근거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물, 공간, 몸 등과 같은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개념화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⁸⁾

또한 은유가 국어 사용자가 너무나 쉽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화 방식이라는 점을 밝히려면 은유 연구가 대화 말뭉치 전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연구에서 은유 표현이 언어 사용자의 인지과정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며, 은유 자체가 중요한 인지모형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화된 대화체를 중심으로 한 은유 연구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으로 하는 자료 전체를 통해 은유를 살핌으로써 국어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개념화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어 사용자의 일상적인 기본 개념 체계를 밝히기 위해 대화 자료에 나타난 국어 사물 개념의 은유적 확장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3장에서 사물의 일반적인 속성과 관련되는 개념화를 다루고, 4장에서는 교체, 액체와 같은 사물의 상태에 따른 속성과 관련되는 개념화를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8) 사물, 공간, 몸 등의 기초 개념어 가운데 신체어를 중심으로 한 국어 은유 연구가 배도용(2002)를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신체부위어가 다른 개념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근원영역이라는 점은 Heine(1997)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한편 공간개념어의 은유적 확장을 다룬 연구로 임혜원(2004)가 있다.

3. [사물]의 은유적 확장

이 장에서는 국어 사용자의 사물 은유의 양상, 유형, 성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어떠한 개념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인 사물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사물] 개념은 교체나 액체와 같은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구체성을 띠고 있어 집속하거나 다룰 수 있는 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다.

- (2) ㄱ. 공주병을 만들어 일부러 방송에서 그래서 근까 진행자들이 만드는 거 같애.
(전-토론)⁹⁾
- ㄴ. 이게 지금 삼 번 같은 대화 방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게 만드는 대화 방법이면서, (강의)
- ㄷ. 그걸 항상 우스갯거리로 이렇게 만들면서도 그거를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하고 있다구. (전-토론)
- ㄹ. 쫘 있으면 애도 가져야 되고 뭐 그러니까 몸을 줌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구 (일상-30대)

(2)의 ‘공주병을 만들다, 기분 나쁘게 만들다, 우스갯거리로 만들다, 몸을 만들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화자가 ‘공주병’, ‘기분 나쁜 상태’, ‘우스갯거리’, ‘좋은 몸 상태’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손으로 만져서 만들 수도 있는 형체가 있는 대상으로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ㄱ. 대화하면서 잡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강의)
- ㄴ. 서민층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라고 한다면 (전-발표)
- ㄷ. 어법이나 문법에 신경 써서 표준말을 사용하고 있구요. (전-발표)
- ㄹ.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런 그 사투리에 섞인 비속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토론)

9) 본문에서 예로 드는 자료의 출처를 적을 때는, 양영하(1997)인 경우에는 (양-방송), 전영옥(1999)인 경우에는 (전-토론), 연세대 말뭉치는 (일상-30대) 등과 같이 적어서 () 안에 말뭉치와 담화의 종류를 함께 나타내고자 한다. 또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전사자가 사용하는 기호나 철자를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3ㄱ)에서는 ‘문제를 접(接)하다’라고 하여 ‘문제’를 접촉할 수 있는 사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ㄴ-ㄷ)에서는 각각 ‘말’과 ‘신경’을 ‘쓴다’고 하여 구체적인 사물로, (3ㄹ)에서는 ‘사투리’나 ‘비속어’를 서로 다른 물질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말’, ‘신경’ 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접촉할 수 있고 섞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인 사물이나 물질로 인지하는 것이다. 앞선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적당한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 그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 곧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므로 이해하기 쉽고, 익숙해야 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조작 가능해야 하며, 수량 측정도 가능해야 하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면모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물]은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적당한 근원영역 개념이 된다.

3.1. 사물의 속성에 근거한 은유적 확장

이 절에서는 사물의 수량, 무게, 온도, 명도, 밀도와 같이 사물의 속성과 관련된지어 은유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기로 한다.

3.1.1. [수량]

- (4) ㄱ. 가요무대에서는 음 저기 시청자들이 나이가 많거든요. (전-발표)
- ㄴ. 이걸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나 되게 난감할 때가 많아요. (강의)
- ㄷ. 내가 쪄금만 더 노력할게 집에서 그냥 놀아라 그러는 거야. (일상-30대)
- ㄹ. 내일 또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줄입니다. (양-방송)
- ㅁ. 지금 좀 전문적인 말씀은 좀 좀 줄여 하시구요. (방송-토론)
- ㅂ. 굳이 장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양-방송)
- ㅅ. 한 번 먹어 보세요, {3.3} 배고픈 나머지 ... {8.1} (일상-20대)

(4)는 사물 은유 가운데 수량을 특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자료이다. 대상의 어떠한 정도를 사물의 [수량]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나이’도 양화하여 많고 적은 것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난감할 때’처럼 어떠한 경우의 빈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물의 수량 개념을 통하는 것이다. 노력의 정도도 ‘조금’, ‘많이’처럼 나타내며, 시간이나 말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대상으로 인지한다. 또한 덩어리 전체에서 쓸모 있는 것을 거두어들이고 남는 부분을 일컫는 ‘나머지’라는 표현을 어떠한 일로 초래된 결과를 나타내는 데 쓰고 있다.

3.1.2. [무게]

일단 화장을 모두 끊고 습진연고를 가볍게 발라주시다 보면은 (양-방송)

(5)에서는 ‘연고를 가볍게 바른다’고 하여 연고의 양을 적게 하여 힘을 덜 들여 살짝 바르는 것과 같은 행위의 정도를 사물의 [무게]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이 가볍다/무겁다’, ‘입이 가볍다/무겁다’, ‘무거운 책임’, ‘가벼운 행동’과 같은 표현에도 사물의 무게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과정이 반영되어 있는데, 행위의 신중한 정도나 중요성의 정도를 주로 사물의 무게와 관련지어 개념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태의 어떠한 정도를 나타낼 때 사물의 [무게]는 유용한 근원영역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1.3. [온도]

- (6) 가. 그래 내가 열 받아 가지구;; 지난주에;; 막 열 받은 거야 ... (일상-30대)
- 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좀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크숍)
- 다. 아니 열라 전화 (일상-20대)
- 르. 분위기 썰렁해졌어. (일상-20대)

(6)은 사물의 [온도]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자료이다. (6가-다)처럼 우리는 화가 난 상태를 열로, 환호를 곁들인 열렬한 박수나 무언가 매우 많이 일

어나는 상황을 온도가 높은 상태로 인지한다.¹⁰⁾ (6ㄷ)에서는 즐겁지 않고 침묵이 흐르는 상태를 온도가 낮은 상태로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화는 신체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화가 나면 실제로 몸이 뜨거워지거나, 박수를 세게 치면 손바닥에 열이 생기거나,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기기가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경험에 의해 동기화된다. 또한 냉정(冷情)과 대비되는 열정(熱情)은 적극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상태를 뜻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모두 활성화된 상태인데 한결같이 온도가 높은 상태로 개념화되어 있으며, 반대로 비활성화된 상태는 썰렁하다거나 찬바람이 분다거나 얼어버렸다고 하여 온도가 낮은 상태로 개념화된다.

3.1.4. [명도]

- (7) ㄱ. 남자들이 이제 길눈이 밝은 이유는 뭔가 하면 (강의)
 ㄴ.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책임성 있게 좀 밝혀 주시죠. (방송-토론)
 ㄷ. 자기네 증권사의 어떤 그런 뭐~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어요. (강의)

(7)은 사물의 [명도]를 통해 개념화하고 있는 사례이다. ‘귀가 밝다/어둡다’, ‘성격이 밝다/어둡다’, ‘국내 사정에 밝다/어둡다’, ‘밝은 전망’, ‘어두운 과거’, ‘인사성이 밝다’ 등과 같이 사물의 명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가지고 상태에 대한 평가를 표현하는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통해서 보면 알고 모르는 것을 각각 밝고 어두운 관점에서, 잘 아는 것에서 확장된 의미인 능통하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각각 밝고 어두운 관점에서 개념화하며, 희망적인 것은 밝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둡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개념화에는 긍정적인 것은 밝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은 어두운 것으로 인지하는 일관된 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또한 (7ㄴ-ㄷ)에서는 다른 사람에

10) 임지룡(2000: 708-709)에서도 ‘화’에 대한 대표적인 은유로 ‘열 은유’와 ‘불 은유’를 들고 있다. 특히 [화는 그릇 속에 있는 액체의 열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분노가 들끓다, 울화가 터지다, 울분이 폭발하다’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11) 임혜원(2005: 107-109)에서는 밝고 어두운 것을 각각 긍정적, 부정적인 것으로 인지하

게 알리는 것을 ‘밝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상을 조명기구로 환히 비추면 대상이 더 잘 보이게 되듯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을 환히 비추어서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김미형 외, 2005: 93).¹²⁾

3.1.5. [밀도]

- (8) ㄱ. 일반교사 양성과정에 교육내용을 조금 밀도 있게 압축해서 제시함과 동시에 (워크숍)
- ㄴ. 체류 기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밀도 있게, 약 그~ 여섯 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십일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워크숍)
- ㄷ. 논문 제대로 안 되면 ... 교수가 되게 까다로운 교수가 있다. (일상-20대)

(8)은 사물의 [밀도]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자료이다. 밀도가 단위 면적이나 체적에 포함된 물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처럼 한정된 조건에 비해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양을 늘리면서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을 ‘밀도 있게’ 구성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뽀뽀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 규칙을 적용하는 정도나 관대한 정도를 나타낼 때 사물의 [밀도]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도가 심하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8ㄷ)의 부사 ‘되게’는 물기가 적어 뽀뽀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형용사 ‘되다’에서 나온 표현이다. ‘되게 까다롭다’라고 하면 까다로운 정도가 높다는 것인데, ‘되게’가 어떠한 상태의 정도를 높이는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이나 구성의 충실한 정도를 주로 사물의 [밀도]와 관련지어 개념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되게’와 같은 표현을 통해 의미확장의 기반이 사물 은유에 있으며, 사물 은유가 언어형식의

는 것이 우리의 빛에 대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고, [빛]이 [희망]이나 [활기], [가치] 같은 다른 개념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예들을 살폈다.

12) 인지언어학자들은 본다는 의미가 있는 지각동사가 아는 것을 의미하는 형식으로 쓰이게 되는 보편적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밝히다’ 경우도 이러한 개념적 보편성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의미확장과 용법이나 기능의 확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음식물]

추상적 대상을 사물 관점에서 이해하는 특징적인 양상 가운데 하나는 [음식물]을 통한 개념화 방식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다.

- (9) ㄱ. 아무리 나이 먹어도 철 안 드는 사람 많고 (전-토론)
 나. 소개시켜 줬다 육 먹어. (일상-20대)
 ㄷ. 오늘은 뭐~ 아주 맛보기로 인제 대화의 기법이 뭐다 강의 소개하는 거라서 (강의)
 ㄹ. 마음의 여유와 지적 흥분을 맛볼 수 대화를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발표)
 ㅁ. 지적 혹은 비판 우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지나가십니까 지금. (방송-토론)

(9)는 추상적 대상을 [음식물]로 이해하고 있는 자료이다. (9ㄱ)에서처럼 ‘나이’를 나타내는 수가 늘어가는 것을 음식물을 먹어서 몸속에 내용물이 생기는 것으로 인지하며, (9나)에서처럼 남이 한 ‘육’을 들어서 마음에 남는 것을 음식물을 먹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 (9ㄷ-ㄹ)에서처럼 간략한 소개를 하는 것이나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음식의 맛을 보는 것으로 인지하며, (9ㅁ)에서처럼 충분한 이해를 음식물의 ‘소화’로 인지하기도 한다. 음식물에 대한 경험은 일상적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경험이다. 이 밖에도 관용적으로 ‘입맛 다시다’라고 쓰이는 표현이 있다. 대상에 대해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음식이 먹고 싶어 입을 다시는 행동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음식물을 맛보고, 삼켜서 포만감을 느끼고, 소화를 시키거나 배설을 해서 다시 허기를 느끼는 것과 같은 신체적 경험들은 지각, 사고, 이해 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곧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정신활동이나 현상을 우리 몸이 하는 가장 익숙한 행위인 먹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식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개념화할 때 매우 유용

한 근원영역 개념이다.

앞선 연구에서 음식물을 근원영역으로 하는 개념적 은유를 다룬 예로 [아이디어는 음식물이다](Lakoff와 Johnson, 1980: 147-148, Kövecses, 2002), [언어는 음식물이다](임지룡, 1997: 187-188), [아이디어 · 정보 · 말은 음식 · 음료 수 · 액체이다](박영순, 2000: 141), [말은 음식물이다](임혜원, 2001: 159-161) 등이 있는데, 이는 ‘말’이나 ‘아이디어’의 음식물과의 유사성, 곧 그것들은 모두 몸속의 내용물이라고 받아들이는 인지과정에 근거한 은유적 개념화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말’은 입을 통해서 발화하고 목구멍을 통해 발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로를 통과하는 공통 속성을 지닌 음식물은 ‘말’이라는 추상적 경험 대상을 개념화하기 위한 근원영역 개념이 될 수 있으며, ‘달콤한 속삭임’, ‘쓴 소리’와 같이 음식의 맛과 관련하여서도 활발한 의미확장을 보인다. Sweetser(1990)에서는 정신 작용을 묘사하기 위해 신체 작용에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게 되는 경향에 대해 신체적 반응과 정서와의 관련성으로 이러한 은유화 경향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곧, 물체의 밝은 색깔이 마음 상태를 밝게 해 주고, 음식의 쓴맛, 단맛과 같은 물리적 효과가 우리 감정에 불쾌하거나 유쾌한 느낌을 남기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sweet home’이 행복한 가정을, ‘bitter experience’가 고통스러운 체험을 의미하는 것도 이러한 관련성에 의한다는 것이다(김경애, 2000: 176-177).¹³⁾

3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다른 추상적 개념을 사물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사물이 손으로 만지거나 조작할 수 있고, 양이나 무게, 온도, 명도, 밀도를 측

13) Kövecses(2002, 이정화 외 옮김, 2003: 128-131)에서는 [아이디어는 음식] 은유를 통해 아이디어라는 추상적 개념과 음식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인 모양이나 지위를 공유함으로써 두 개념 사이의 특정한 구조적 유사성을 지각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였다. 이때 지각된 구조적 유사성은 ‘요리하기 ⇒ 생각하기, 삼키기 ⇒ 수락하기, 씹기 ⇒ 고려하기, 소화하기 ⇒ 이해하기, 영양 ⇒ 정신적 안녕’인데, 이는 [마음은 그릇], [아이디어는 물체]와 같은 존재론적 은유에 의해 유도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신체에 대한 비은유적인 가정과 이해를 마음에 사상시키는 존재론적 은유가 주어지면 우리는 음식과 신체에 대해 우리의 구조화된 지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납득하게 하며, 바로 이런 식으로 존재론적 은유는 개념적으로 동떨어진 영역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쉽게 지각하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정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경험의 대상이다. 사물에서 얻은 다양한 지식은 사물 개념의 은유적 확장의 동기가 되며, 사물 은유는 이와 같은 사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바탕이 된다. Lakoff와 Turner(1989: 169-173)에 따르면, 우리는 존재의 형태에 관한 일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사물에는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은 사물이 행동하고 기능하는 방식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물체가 딱딱하고 부드럽고 깨지기 쉬운 것과 같은 본질적인 속성들이 사물의 본질적인 물리적 행동을 초래한다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상의 사물들이 서로 관계되는 방식에 대한 일상적인 이론을 존재의 대연쇄(The Great Chain of Being)이라고 불렀다.¹⁴⁾ 이 존재의 대연쇄는 존재론적 은유의 기본 바탕과 내적 체계를 설명해 준다.

4. 사물의 상태에 따른 은유적 확장

이 장에서는 다른 대상을 [고체], [액체]와 같은 사물의 상태 관점에서 인지하고 있는 자료를 살피기로 한다.

4.1. [고체]

흔히 사물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상태는 고체일 것이다. 고체는 뚜렷한 윤곽이 있고 흐트러지지 않는 형체가 있어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사물 하면 일차적으로 고체 상태를 떠올릴 정도로 고체는 여러 가지 사물의 상태 가운데 개념적으로 우선적이고 원형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14) Lakoff와 Turner(1989: 170-171)에 제시한 존재의 대연쇄는 다음과 같다:

- 인간: 상위의 속성과 행동(예: 사고, 성격)
- 동물: 본능적 속성과 행동
- 식물: 생물학적 속성과 기능적 행동
- 복잡한 물체: 구조적 속성과 기능적 행동
- 자연스러운 물리적 사물: 자연스러운 물리적 속성과 자연스러운 물리적 행동

- (10) ㄱ. 여기서 약속 잡은 것도 그냥 어디 전화로만 들었는데 (일상-20대)
- ㄴ. 오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다시 한 번 교육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 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워 크숍)
 - ㄷ. 앞으로 아 국민소득이 만오천불 정도가 되면 그런 향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런 체제가 많이 잡힙니다. (양-방송)
 - ㄹ. 뭐 그런 거 약점 잡아서 막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전-토론)
 - ㄹ. 여름철 피부관리 고 좀 보편적으로 말이죠 꼭 집어서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양-방송)
 - ㅂ. 인터넷에서 통일 연대 여러분이 표방하는 여러 가지를 다 뽑아 봤어요. (방송-토론)
 - ㅅ.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골랐을 때 (전-토론)
 - ㅇ. 분명히 웃길 의도로 말을 했는데에 그거를 시청자들이 놓칠 때가 있잖아. (전-토론)

(10ㄱ-ㄷ)은 손으로 잡는 행위와 관련지을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온다. 약속이나 기간을 정하는 것, 체제가 정비되는 것과 같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확정하는 것을 구체적인 대상을 손으로 잡는 것과 같이 인지하며, 악용할 목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을 고체 사물을 손으로 움켜잡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지한다. 또한 요점만 골라 말하는 것을 (10ㄹ)과 같이 ‘꼭 집어서 말하다’라고 하여 손가락으로 작은 고체 덩어리를 집어내는 것과 같이 인지한다. (10ㅂ-ㅅ)에서도 자료를 선택하는 것을 ‘뽑고’ ‘고른다’고 함으로써 이것도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골라잡는 것과 같이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깜빡 잊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10ㅇ)처럼 손에 사물을 들고 있다가 놓치는 것과 같이 인지한다.¹⁵⁾ 고체 사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경험은 손으로

15) Sweetser(1990: 24-37)에서는 영어와 인도유럽어의 지각동사의 어원과 발달 경로를 밝히면서 물리적인 ‘잡는’ 행위를 나타내는 어휘가 정신 영역으로 확장 사용되어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보편적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김경애, 2000: 178-179). Kövecses(2002, 이정화 외 옮김, 2003: 388-389)에서는 앓, 감정, 판단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낱말이 역사적으로 시각, 접촉, 맛과 같은 신체적 감각을 나타내는 낱말에서 나왔다고 하는 Sweetser의 논의를 다음과 같은 신체로서의 마음 체계(THE MIND-AS-BODY SYSTEM)로 개괄하였다: 정신적 조작 통제 ⇒ 물리적 조작, 시각

잡거나 떨어뜨리는 것이며, 손으로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것만큼 확실한 경험도 없다. 따라서 대상을 손으로 잡았다는 것은 확정의 의미가 있으며, 손으로 대상을 잡고 있다는 것은 대상의 소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 (11) 가.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언어를 더 망가뜨리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전-토론)
- 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방청객의 반응을 유도하고 (전-토론)
- 다. 출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리포터를 다 자르고 아나운서들을 많이 쓴대. (전-토론)
- 르. 그러면은 거기 옆에다가 괄호를 분명히 쳐 놓고 물음표만 이상한 거 달아 놓고 설명을 해 줘야지 (전-토론)
- ㅁ. 그래가지구 내 괜히 민망하잖아 우리가 괜히 막 호들갑 떨어가지구 (일상-30대)
- ㅂ. 차이가 나는 문장이나 어휘 이런 것을 훑어봄으로써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까. (전-발표)

(11)은 ‘언어를 망가뜨리고, 대화를 나누고, 리포터를 자르고, 물음표를 달고, 호들갑을 떨고, 내용을 훑는’ 것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다른 대상을 손으로 조작하는 것과 같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이다. 행위의 양상과 국면에 따라 조작의 양상과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올바른 언어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을 ‘망가지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대화 덩어리를 ‘나누는’ 것으로, 사람을 해고하는 것을 고체 덩어리를 잘라 못쓰게 만드는 것으로, 물음표를 그리는 것을 말이라는 대상에 물음표라는 사물을 매다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또한 ‘호들갑 떨다’에서도 짐작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도 ‘호들갑’이라는 대상을 가만두지 않고 떨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개념화는 호들갑이라는 행동이 이루어질 때 몸에서 일어나는 양상, 곧 몸의 움직임이 많은 것과 같은

⇒ 물리적 조작, 지식·정신적 시야 ⇒ 시각, 내부의 수용성 ⇒ 듣기, 감정 ⇒ 느낌, 개인적 선호 ⇒ 맛. 우리말에도 무언가를 알아차린다는 의미로 ‘감(을)잡다’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놓치다’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보편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 경험에 근거한다. (11b)에는 내용을 ‘훑어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훑는 동작은 손가락이나 길쭉한 도구 틈으로 대상의 알맹이 같은 것이 걸려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동작인데, 곡식의 줄기에서 낱알만을 골라내듯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 정보를 추려내는 것을 대상을 훑는 동작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은유적 개념화는 대상을 손으로 잡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하여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고체 사물의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12) ㄱ. 십일월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크숍)

ㄴ. 네 매번 그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양-방송)

(12)는 눅혀 있던 고체 대상을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일으키거나 세우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자료이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다’, ‘입장이 서다’와 같이 불명확하던 것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을 서는 동작으로 인지하는데, 이는 눅혀 있는 대상을 세우면 눈에 보이는 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물리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 흔히 표지판이나 광고를 위한 구조물은 수평 방향보다 수직 방향으로 세워 누구나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든다. 이는 서는 동작 자체의 긴장성, 동작주의 운동 의지, 운동에 필요한 힘과 같은 신체적 경험과도 관련이 있다. ‘문제를 일으키다’와 같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눅혀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과 같이 표현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정도를 높여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측면에서 개념화하는 것이다.

4.1.1. 고체 사물의 속성에 근거한 은유적 확장

여기에서는 크기, 모양, 질감 등과 같은 고체 사물의 속성에 근거하여 은유적 확장이 이루어진 자료를 살펴기로 하겠다.

4.1.1.1. [크기]

- (13) 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행동도 커지지 않구 작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발표)
- 나. 부인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모션이나 목소리 같은 게 부인보다 부인은 애교스럽고 남자는 좀 커지고 이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발표)
- 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양에 갈 때는 상당히 기대도 희망도 컸습니다. (방송-토론)
- 라. 그거를 또 방송하고 그런 거는 힘이 크니까 (전-토론)
- 로. 방송매체를 통해 나갔을 때 그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발표)
- 비. 그렇게 크게 그것에 있어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일상-20대)
- 시. <vocal desc='웃음'> 졸았어. (일상-20대)

(13)은 고체 사물의 [크기]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자료이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동’, ‘마음’, ‘목소리’, ‘기대, 희망’, ‘힘(영향력)’, ‘파급 효과’, ‘신경을 쓰는’ 등의 정도를 고체 사물의 크기로 표현하고 있으며, (13시)의 ‘졸다’와 같은 쓰임에서는 태도의 당당한 정도 등도 고체 사물의 크기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개념화는 물리적 크기와 상관이 있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큰’ 것은 큰 목소리를 낼 때의 우리 자세의 크기와 관련이 있고, 위축된 상태의 의미인 ‘졸다’의 경우에도 몸을 수그리거나 고개를 들지 못하는 등 물리적으로 몸을 작게 만드는 행위와 관련이 있어 그 체험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건이나 행위의 정도를 사물의 [크기]로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16) [사물의 크기] 관점에서 이해하는 개념화 방식과 관련하여 Sweetser(1997)의 <Metaphor and Metonymy List>에서도 VALUE IS SIZE라는 은유가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 ‘Do you have anything smaller than a twenty? Can you break a twenty? We don’t accept any bill larger than a twenty?’와 같이 가치의 정도를 화폐의 크기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김중도, 2004: 251).

4.1.1.2. [모양]

- (14) ㄱ. 성격이 되게 좀 좋아. 둥글둥글하구 그냥, (일상-30대)
 ㄴ. 우리 상당히 똑바로 자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두. (전-토론)
 ㄷ. 영화를 보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남자와 여자의 말투거든요. (전-발표)
 ㄹ. 남측 추진 본부는 평양 체류 중에 있었던 일부 돌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방송-토론)

(14)는 고체 사물의 [모양]을 통해 인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성격의 어떠한 국면을 말하고자 할 때 많은 경우 사물의 모양을 예로 들어 말한다.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것이 있다. 대상에 모가 나서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다른 것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며, 때로는 뾰족한 부분이 꺾여 나가기도 한다. 사물의 이러한 측면은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둥글둥글한 성격’이면 다른 사람과 충돌이 적을 것이며, 반대로 ‘모난 성격’은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 (14ㄴ)에서는 ‘똑바로’ 자랐다고 하여 올바르게 성장한 측면을 사물의 곧은 모양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있다. 이리저리 구부러진 모양보다 곧은 모양은 예로부터 긍정적 가치를 부여받았으며, ‘대쪽 같다’라는 표현도 이러한 개념화 방식과 관련이 있다. (14ㄷ-ㄹ)은 사물의 전체적인 윤곽을 벗어나 튀어나오는 부분의 모양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때 튀어나온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잘 보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현상을 표현할 때 근원영역 개념으로 사용하기 적절하며, 튀어나온 부분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돌출된 모양은 기대를 벗어난 행동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 이밖에도 사물의 모양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경우는 ‘뾰족한 수’, ‘날카로운 지적’ 등과 같은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건 상태의 다양한 국면에 따라 사물의 모양을 다양하게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1.3. [질감]

- (15) ㄱ. 그러구 억양이나 발음이 다소 딱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발표)
- ㄴ. 제가 말을 할 때 아주 뽀뽀하게 굳어서 심드렁하게 얘기하면 (강의)
- ㄷ. 그랬을 때 <Q안녕하세요Q> 이러구 타면 아저씨가 좀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강의)
- ㄹ. 형사들의 대화여서 대개 말이 거칠습 거칠어집니다 거칩니다. (전-발표)
- ㅁ. 아침을 못 먹겠드라고. 입이 갈갈해서, (일상-20대)
- ㅂ. 관련 정보를 입수해야만이 그 정보가 다듬어질 수 있거든요. (양-방송)
- ㅅ. 둘째 아들 부부를 보시면, 부인이 직업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팽팽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전-발표)

(15)는 고체 사물의 [질감] 관점에서 인지하고 있는 자료이다. (15ㄱ-ㄹ)은 말이나 말할 때의 태도를 사물의 질감이나 굳기(硬度)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에 뽀뽀나 손을 댔을 때 부드러운 촉감을 선호하듯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친절한 말투로 말하는 것은 부드럽다고 인지하며, 음운 하나하나 짧게 끊어서 발음하며 말도 짧게 하는 것은 불친절한 말투로 느끼고 딱딱하거나, 뽀뽀하거나, 거칠다고 인지한다. 말하는 사람이 명령하듯이 말을 하는 것은 불친절하게 느껴 딱딱한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긴장을 많이 하거나 위엄을 갖추기 위해 경직된 태도를 띠면 뽀뽀한 것으로, 욕설 같은 것을 많이 섞어 말하기 때문에 듣기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은 거친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사물의 [굳기]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다른 예로는 ‘굳은 맹세, 입지를 굳히다, 돈이 굳다’나 ‘무른/물렁한 성격’과 같은 자료가 더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것을 단단한 것으로 변화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물렁한 것으로 인지하는 일관된 개념화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5ㅁ)에서 ‘입이 갈갈하다’고 한 것은 입 안에 거친 면이 많아 음식이 부드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또한 (15ㅂ)과 같이 유용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듬다’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거친 면을 깎아내서 다루기 좋게 만드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ㅅ)의 ‘팽팽함’은 사물의 질감이라기보다는 촉감이

나 시각적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긴장감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팽팽한 상태는 대상을 맞잡고 있어서 그것이 끈이라면 끊어지기 직전의 상태, 면이 있는 사물이라면 깨지거나 찢어지기 직전의 불안정한 상태인데, 사건의 불안하고 긴장감 있는 상태를 사물의 팽팽한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까칠하다’를 들 수 있다. ‘얼굴이 까칠하다’, ‘성격이 까칠하다’와 같이 쓰는데, 실제로 얼굴을 만졌을 때 까칠한 느낌이 드는 것을 ‘얼굴이 까칠하다’고도 하지만, 만지지 않고도 표정이나 심리적 느낌만으로도 까칠한 것으로 인지하기도 한다. 또한 성격이 까칠하다는 것은 원만하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를 통해 사물의 [질감] 관점에서 이해하는 근원영역 개념은 주로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weetser가 제시한 신체로서의 감정 체계에 포함된다. Sweetser(1990)에서는 미각이나 촉각은 감각 대상과의 실제 접촉에 의한 것으로 주관적인 감각이고 감정이나 느낌의 영역과 대응되어 은유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촉각 동사가 언어보편적으로 정신적인 면에서의 인간의 성향이나 기호와 관련이 있고 촉각이 일반적 지각, 정신 상태, 느낌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하였다(김경애, 2000: 180).¹⁷⁾

4.1.2. 더 구체화된 고체 사물을 통한 은유적 개념화

사물은 고체 상태에서 더 나아가 더욱 구체적인 사물 개념을 통해 은유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다음 자료를 보자.

17) 또한 Sweetser(1990)에서는 미각, 곧 맛(taste)이 취미, 기호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사람들이 음악, 친구, 음식, 의상에 대해 갖는 취향이 매우 주관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4.1.2.1. [그릇]

(16) ㄱ. 이 사람은 귀담아 듣지 않고 (강의)

ㄴ.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그냥 화끈하게 뽐~ 거짓이든 진실이든 되게 화끈하게 해 남자답게. (일상-20대)

ㄷ. 힘든 일이나 뽐~ 이렇게 담아두지 말고 나한테 와서 풀어라 다 얘기해라 (일상-20대)

ㄹ. 차량이 이쪽으루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을 잘 몰라 가지구 (일상-20대)

ㅁ. 이 범죄 세계에 몸담고 있는 그런 형사들의 대화여서 (전-발표)

ㅂ. 요즘 들어서는 인제 자위선 차단 크립을 꼭 바르라고 (양-방송)

ㅅ. 또 교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들어가 임용고시에. (일상-20대)

ㅇ.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휘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발표)

ㅈ. 강론에서 일반적인 평화협정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았어요. (방송-토론)

(16)은 대표적인 존재론적 은유 가운데 하나인 그릇 은유(container metaphor)의 예이다.¹⁸⁾ 우리는 실체가 없는 개념이나 사건도 경계를 부과하여 구체적인 대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경계를 기준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며 이것을 [그릇]으로 인지할 수 있다. 그릇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물리적인 경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릇 개념은 추상적인 다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근원영역 개념으로 자주 선택된다. 그릇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면이 있다는 것 외에도 내용물을 가질 수 있다는 속성 때문에 많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16ㄱ)의 ‘귀’와 같이 신체기관을 그릇으로 인지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몸이나 마음을 그릇으로 인지하며, 경계가 없는 장소, 소속, 시간적 범위, 범주 등을 그릇으로 인지하며, 재료, 속성, 구성요소, 요건, 내용 등을 그릇의 내

18) Lakoff와 Johnson(1980: 29-32)에서는 그릇 은유를 개체와 물질 은유와 함께 대표적인 존재론적 은유로 다루었다. 그리고 그릇 은유를, 몸·방·집·숲·영토 등과 시야·사건·행위·활동·상태 등을 안-밖 지향성(in-out orientation)을 가진 그릇 개념을 통해 인지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임혜원(2004: 119-172)에서는 그릇 은유의 양상을 [몸은 그릇], [건물은 그릇], [장소는 그릇], [소속은 그릇], [범위는 그릇], [통합체는 그릇], [사건은 그릇]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은유들 간에도 의미확장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용물로 인지한다.

4.1.2.2. [끈]

- (17) ㄱ. 그런 말투를 써 가면서 말을 근까 길게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전-토론)
 ㄴ. 끝처리를 보면은 굉장히 남자들은 짧게 끝을 맺 맺 짧게 끝을 맺 맺습니다.
 (전-발표)
- ㄷ. 일단 화장을 모두 끊고 습진연고를 가볍게 발라주시다 보면은 (양-방송)
- ㄹ.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송-토론)
- ㅁ. 네 궁금증 푸셨습니까? (양-방송)
- ㅂ. 워낙 정체가 심했었기 때문에 이 지체가 풀리기까지는 아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양-방송)
- ㅅ. 그거에 매이면 안 되는데:: 약간의 계획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일상-30대)

(17)은 [길쭉한 사물]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자료로, 개념화 대상을 [끈] 같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 경우는 시간적 지속성과 관련하여 흔히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17ㄱ-ㄴ) 과 같이 길게 늘이기도 하고, 짧게 끝을 맺는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는 (17ㄷ)의 ‘화장을 끊다’나 ‘담배를 끊다’와 같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해 온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마치 끈을 끊는 것과 같이 인지한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어진 것을 ‘필름이 끊기다’라고 표현 하는데, 이것 역시 영화처럼 시각적 영상으로 남아 있는 기억이 없어진 것을 영상이 담긴 필름이 끊어진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한편 끈은 사물의 속 성상 꼬이기도 하며 엉키기도 한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끈이 꼬이거나 엉킨 매듭이 생기는 것으로 인지하며, 반대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매듭이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으로 인지한다. 또한 (17ㅅ)의 ‘-에 매이다’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을 대상 이 어딘가에 끈으로 묶여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4.1.2.3. [짐]

- (18) ㄱ. 거기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한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단체가 져야 될 책임이라는 생각입니다. (방송-토론)
- ㄴ. 중앙일보조인스닷컴에는 여전히 가관 기사가 지금도 오늘도 실려 있습니다. (방송-토론)
- ㄷ. 뉴스에서 가장 큰 특징은 우선 객관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속에 감정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전-발표)

(18)에서는 [짐]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있다. ‘책임을 지다’라는 표현에는 ‘책임’이라는 대상을 짐처럼 등에 지는 것과 같이 인지하는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신문에 기사가 실린다’와 ‘말에 감정을 싣는다’는 표현에는 수레에 짐을 올려놓는 것과 같이 인지하는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짐’은 우리의 인지에서 짐을 싣는 대상의 내용물이 될 수 있으며, 속성상 무게 때문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데, 경험에 의해 얻어진 짐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은 짐 개념을 통한 은유적 개념화의 동기가 된다.

4.1.2.4. 기타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 외에도 고체 사물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다음과 같은 예가 더 있다.

- (19) ㄱ. 뉴스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딱 짜여가는 대사를 읽고 또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해야 하지만 (전-발표)
- ㄴ. 유행을 타지 않는 유망한 업종들만 제가 쪼어가지고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방송)
- ㄷ. 존댓말을 좀 어느 정도 격식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 (전-토론)

(19)는 어떠한 대상의 조직적 측면을 [사물의 짜임] 관점에서 인지하는 자료이다. 다른 대상과 연관을 맺으면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씨줄과 날줄을

교차시켜 옷감을 짜는 것과 같이 인지하는 것이다. ‘조를 짜다’, ‘계획을 짜다’에서도 이러한 인지과정은 반영되어 있다. (19ㄷ)의 ‘격식을 맞추다’에서도 들 이상의 다른 대상을 접촉시켜 잘 들어맞도록 구성하는 인지과정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체 사물의 구체적인 다른 형태를 인지하는 자료도 있다.

- (20) ㄱ. 우리나라에서처럼 <Q 에이 애가 뭘 안다고 Q> 그케 손님들이 갑싸주잖 아요. (전-토론)
- ㄴ. 우려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쓰는 것은 참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토론)
- ㄷ. 텔레비전을 많이 본 애들 있지? 많이 본 애들이 까졌어? (전-토론)

(20)에서는 사건이나 행위를 많은 사물 가운데 천이나 이불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난다. (20ㄱ)에서는 잘못이 드러나지 않도록 허물을 천으로 가려주는 것과 같이 인지하고 있으며, (20ㄴ)에서는 천 같은 것을 뒤집어써서 억울한 속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20ㄷ)에서는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껌테기나 옷이 벗겨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껌테기는 알맹이를 취하기 위해 버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지되기도 하고, 껌테기가 알맹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겨야 할 장애 요소 같은 것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이는 알맹이의 순수한 상태가 단단한 껌테기에 잘 싸여진 상태이며, 그 껌테기를 벗기면 외부에 노출됨과 동시에 순수성을 잃게 된다는 유추가 수반된 은유적 개념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체 사물 속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물 개념이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고체 사물은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고,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작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모양을 통해 시각적으로, 질감을 통해 촉각으로 사물의 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상태의 다양한 측면을 이와 같은 고체 사물의 특성과 관련지어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이다.

4.2. [액체]

사물의 액체 상태는 만져지기는 하나 윤곽이나 형체가 없어서 그릇에 담아 놓지 않으면 흘러 버리는 특성이 있다. 형태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이 특성 때문에 고체보다 사물답지는 않지만, 바로 이 액체만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사건의 유연한 상태를 개념화하는 데 근원영역 개념으로 자주 사용된다.

- (21) 가. 참 대= 대화의 방향이 좋은 데로 많이 흘러가고 있군. (일상-20대)
 나. 벌써 내가 프로필을 흘렸어, 다 흘러 버렸어. (일상-20대)
 다. 과문이 불거지면서 일부 인사들의 돌출행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방송-토론)
 리. 말이 안된다고 싶으면은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압박지르는 식으로 (전-토론)
 미. 사과 방송 내보낼 게 아니라 좀 애초에 방송 내보낼 때 좀 걸렸으면 좋겠어. (전-토론)
 비. 요즘은 그냥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정말 어떤 여과 장치없이 (2.0) 그 오염된 물들이 그냥 하천으로 쏟아져 나오듯이 그냥 나오는 거 같아요. (전-토론)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은 소리로 존재하기는 하나 형체가 없어 잡히지 않고 다른 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며 그러한 특성 때문에 한 번 말실수를 하면 그 수습도 어렵다. 이러한 ‘말’의 속성은 액체와 매우 유사하다. (21)은 ‘말’을 [물]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한정된 주제에 따라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흘러간다’고 하고, 말 할 의도가 별로 없는 척 조금씩 말하는 것을 ‘흘린다’고 하며, 정신없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쏟거나 퍼붓는’ 것으로 표현한다. 청자 입장에서 말을 쏟거나 퍼붓는다는 표현을 듣게 되면 마치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당혹스러운 느낌까지 전달 받게 된다. 또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흐르다’라고 하면 행위 주체의 의도가 덜 들어가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미묘한 어감의 차이까지 느낄 수 있다. (21ㄱ-비)에서는 ‘여과’를 인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언어행위를 일단 [물]로 사상시키고 나면 사건의 국면에 따라 물의 속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2) 가. 그거 때문에 이~ 상당한 파문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방송-토론)
- 나. 일부 언론의 보도는 파문을 일파만파로 증폭시켰다. (방송-토론)
- 다. 따라서 민간이 열리는 가능성이 얼만큼 넓게 인제 퍼져 나갈 건지를 (방송-토론)
- 르. 이경규가 물을 잘못 들어서 그런지 (전-토론)
- 로. 그거를 통해서 시청자를 흡수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토론)
- 비.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약간 아주 고음은 아닌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탁한 소리가 조금 들어가는 편이긴 하고. (강의)

(22가-나)에 쓰인 ‘파문(波紋)이 일어나다’는 잔잔했던 수면 위에 돌 같은 것을 던져 물결무늬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어떠한 일로 인해 다른 것에 그 영향이 크게 미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22나)의 ‘일파만파(一波萬波)’라는 표현도 물결이 건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을 의미한다. 둥근 물결무늬는 그 특성상 원을 그리면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크게 퍼져나가는데 바로 이러한 점은 어떠한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는 사건의 측면을 은유적으로 개념화하는 데 유용하다. (22다)의 ‘가능성이 퍼져 나간다’에서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옆으로 계속 번지는 물의 이동 속성과 관련한 은유적 개념화가 나타난다. (22르)의 ‘물을 들이다’에서는 물이 다른 사물에 배어드는 속성과 관련하여 다른 대상에게 성질이나 속성이 옮겨가는 것을 물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있다. (22로)의 ‘흡수’에서는 지지층을 확대하는 것을 대상이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이 인지하는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22비)에는 ‘맑다’와 대립되는 ‘탁(濁)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다른 종류가 섞여 있어 흐리다는 것으로 액체의 농도 관점에서 개념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사건의 양상을 물의 속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은유적으로 개념화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은유적 개념화에 관여하는 물의 속성은 형체가 잡히지 않아 흘러버린다는 것, 강물처럼 자연적으로 흐르기도 한다는 것,

물과 접촉하면 젖기도, 물이 배이기도 한다는 것, 농도와 같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 등인데, 이것들은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물에 대해 충분히 경험한 것이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대화 자료에 나타난 국어 사물 개념의 은유적 확장을 다룸으로써 국어 사용자의 은유적 개념화 방식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국어 사용자의 개념 구조와 인지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물 은유는 개념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존재론적 은유인데, 사물의 다양한 국면을 통해 우리의 물리적·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은유적 확장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미 고체, 액체 등의 다양한 사물의 상태를 보거나 만지거나 느끼면서 경험하였고, 음식물이나 그릇과 같이 더 구체화된 사물도 직접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사물에 대한 경험 내용은 우리의 인지 속에 자리 잡혀 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사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사용한다. 따라서 사물 개념에 기초한 은유적 개념화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화 방식으로서 우리의 인지과정에 실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물 은유를 사물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지을 수 있는 [사물], 그리고 사물의 상태인 [고체], [액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폈다. 이 개념에 기초한 은유적 개념화 방식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를 통해 사물 개념은 사건이나 행위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개념의 근원영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물 은유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물 은유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인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사물] 개념을 통한 은유적 개념화의 양상으로는, 손으로 만지거나 행위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사물의 일반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사물의 [수량], [무게], [온도], [명도], [밀도] 등의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개념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료를 통해 사건이나 행위의 크고 작은 정도를 [수량]으로,

중요성이나 신중함의 정도를 [무계]로, 활성화의 정도를 [온도]로, 좋고 나쁜 정도를 [명도]로, 충실한 정도를 [밀도] 등으로 인지하는 것과 같은 패턴이 발견되었다. 사건이나 행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는 근원영역 개념으로 [음식물]이 나타났다.

셋째, [고체] 상태를 통한 은유적 개념화의 양상으로는, 손에 쥐거나 손에 쥐고 조작할 수 있다는 속성에 근거하여, 고체 사물의 [크기], [모양], [질감]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개념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건이나 행위에 들어가는 힘의 정도와 관련하여 고체 사물의 [크기]로, 어떠한 성격이나 면모를 사물의 [모양]이나 [질감]으로 인지하는 방식이 관찰되었다. 또한 [그릇], [끈], [짐], [천] 등과 같이 더 구체화된 은유적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액체] 상태를 통한 은유적 개념화를 살핀 결과, 사물의 [액체] 상태는 액체의 특성상 사건의 유동적인 상태, 행동주의 의지가 많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개념화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자료에는 사물의 또 다른 상태인 [기체] 개념에 기초한 은유적 개념화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체 상태가 형체가 없어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다는 속성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추상적인 다른 개념을 이해하는 근원영역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피면서 말뭉치 자료에서 나타나는 사물 은유의 양상을 빈도나 경향성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성으로 지적된다. 사물 개념을 통한 은유적 개념화가 한국어 사용자의 기본 개념 체계로서의 논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빈도 조사와 같은 실증적 검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애(2000), “Eve E. Sweetser: 인지 의미와 의미 확장,” 이기동 편저, 인지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 김명미(2002), “은유 이해력의 발달 경향 분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형 외(2005), *인간과 언어*, 서울: 박이정.
- 김종도(2004), *인지언어학적 원근법에서 본 은유의 세계*, 서울: 한국문화사.
- 나익주(1995), “은유의 신체적 근거,” *담화와 인지* 1, 담화·인지언어학회, 187-213.
- 노양진(2003), “은유와 몸의 철학,” *담화·인지언어학회 제 17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담화·인지언어학회, 33-41.
- 박영순(2000), *한국어 은유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배도용(2002), *우리말 의미확장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양영하(1997), “방송 상담 대화의 구조와 체계 분석,”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임지룡(2000), “‘화’의 개념화 양상,” *언어* 25-4, 한국언어학회, 693-721.
- 임지룡(2005), “감정의 색채 반응 양상,” *담화와 인지* 12-3, 담화·인지언어학회, 75-99.
- 임혜원(2001) “한국어 ‘말’의 은유,” *한말연구* 8, 한말연구학회, 139-173.
- 임혜원(2004),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서울: 한국문화사.
- 임혜원(2005), “[빛]과 [색]의 은유적 확장,” *담화와 인지* 12-3, 담화인지언어학회, 101-119.
- 전영옥(1999), “한국어 담화에 나타난 반복표현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Gibbs Jr., Raymond. W.(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나익주 옮김(2002), *마음의 시학*, 서울: 한국문화사.)
- Heine, Bernd(1997),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이성하·구현정 옮김(2004), *문법의 인지적 기초*, 서울: 박이정.)
- Johnson, Mark(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 옮김(2000), *마음 속의 몸*, 서울: 철학과현실사.)
- Kövecses, Zoltán(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이정화 외 옮김(2003), 은유, 서울: 한국문화사.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나익주 옮김(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서광사.)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임지룡 외 옮김(2002),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 서울: 박이정.
- Lakoff, George and Mark Turner(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기우·양병호 옮김(1996), *시와 인지*, 서울: 한국문화사.)
- Leech, G. N.(1969), *Toward a Semantic Description of English*, London: Longman.
- Sweetser, Ev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역삼한신아파트 5-706
135-270
전화 번호: 02-576-3817
전자 우편: hyewonlim@hanafos.com

원고투고일: 2006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 2006년 4월 3일

K C I